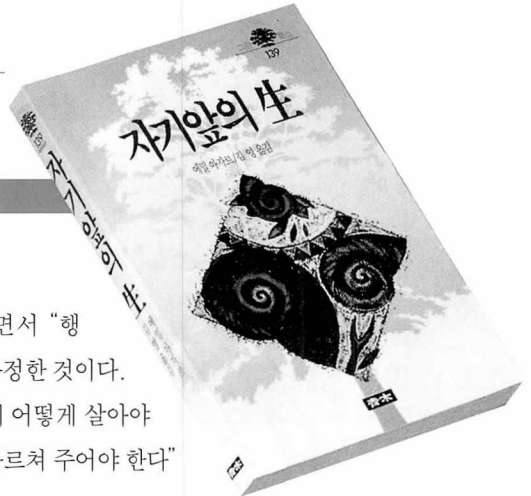


내 안의 어둠을 긍정하라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청목/B6변형/260면/3000원



늦게 돌아와 방안에 불을 켜다.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드이는 형광등 불빛. 방안 가득 떠 있던 어둠이 한순간 꼬리를 감춘다. 어떤 녀석은 더 깊은 어둠을 찾아 창 밖으로 몸을 던지고, 또 어떤 녀석들은 온갖 사물 밑으로 재빨리 몸을 숨긴다. 다 채워지지 않은 책꽂이의 책과 책 사이, 그리고 세월의 더께를 뒤집어쓴 낡은 책의 책장과 책장 사이는 어둠이 숨어 있기 좋은 장소다.

빛과 어둠의 숨바꼭질을 지켜보며 문득 떠오른 책이 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김영, 청목)이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그 시절 나의 현재는 불온했고, 미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인 듯 불안했다. 여물지 못한 사랑은 꼬투리 비틀린 쪽정리로 남아 늦서리를 맞고, 나는 더 깊은 어둠을 향해 침잠하고만 있었다.

그해 겨울, 하루가 멀다고 쌓이는 눈은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며칠씩 끊어버리고, 나는 겨우내 방안에 갇혀 시계추가 끌고 가는 세월의 발자국 소리만 들었다. 먼지보다 작은 입자로 환원해 어딘가에 숨어버리고 싶던 시절이었다.

로맹 가리가 1975년 에밀 아자르란 필명으로 출간한 이 책은 “인생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어린 소년 모모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성장기다. 모모는 “영웅이로 돈을 벌어서 살았”던 늙은 창녀 로자와 매달 송금수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창녀들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모모는 비애로 얼룩진 밑바닥 삶을 전전하면서도 언제나 악동 같은 낙천성을 잃지 않는다. 행복해지려고 안달하지도 않는다. 오히

려 삶을 긍정하면서 “행복이란 더럽고 무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놈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 작은 책을 아주 조금씩 아껴 읽었다. 책과 얼굴을 맞대던 며칠 동안은 열살난 모모와 함께 숨을 쉬며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땐, 갑자기 네살을 더 먹은 모모처럼 나도 갑자기 커져 버린 느낌이였다.

아무 것도 분명한 것이 없던 시절, 이 책은 내게 “희다고 하는 것은 검은 색이 숨겨진 것을 의미하고, 또한 검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흰 것이 숨은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가만히 환한 불빛 아래 앉아 있으면 침묵도 하얗게 바스락거릴 때가 있다. 하지만 손가락 한두개만 구부려도 금세 손바닥 안에 그들이 고인 다. 빛과 어둠의 경계도 손바닥 한장에 걸려 있다.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오랫동안 책장에 파묻혀 있던 이 책을 아주 가끔 꺼내본다. 그런 날은 대개 창턱을 넘어온 자동차들의 악다구니가 목청 좋은 개구리들의 합창처럼 들린다. 그 시절 창틀에 쌓였던 한숨은 날아갔지만, 술래가 찾지 못한 어둠 하나 있어 이 가을 빛바랜 추억의 심지를 돋운다. 이 책의 한 구절이 가슴을 환하게 한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법이다. 사랑해야 한다.” —박옥순 기자

출판물 유통 서비스의 품질보장 선언!

“미래도서유통은 출판문화 유통산업의 현대화를 위하여 21세기 일산 출판문화 벨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 합니다”

- 보증이 없습니다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경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00% 안전보장 시스템
-화재·수해로부터 귀사의 재산을 안전 보장해 드립니다.
- 일일수거 배본 엄수
-서울·지방을 차량으로 신속한 배본 100%

미래 도서유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582-7
전화 · 031)923-6571 (代)
팩스 · 031)923-4722

- 최상의 입지조건과 넓은 공간(1,000평)의 활용
-신촌에서 25분(차량), 76번 노선버스(신촌↔일산), 3호선 대화역
- 원고기획 편집 제작 유통까지 책임 서비스
-각종 출판물 제작/출판프로그램 지원합니다.
- 정회원을 위한 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
-21세기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초입